

## 이땅의 사람들

단군사당서 '홍익인간' 펼치는 조병호씨

## 우리얼지키기 곳곳한 한평생

“역사 올바른 자리매김이 나라혼 살리는 길”

“사람이든 국가이든 간에 혼이 없으면 사지가 흩어지고 백성이 제멋대로 가게 되어 망하게 돼있어. 그러니 남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아니라 말일세. 사회정의나 국가발전은 물론 남북통일도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을 올바로 되찾을 때 가능한 것 이야.”

대전시 서구 정림동 58 1천5백평의 너른 대지에 배달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사당인 '단묘'를 지어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등 우리 얼을 지키고 있는 정향 조병호(81·서예가)씨는 우리 모두가 '서양의 양자'가 돼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정향은 원래 중국 한나라 때부터 전해내려온, 기와무늬그림에 글을 쓰고 전서로 주석을 다는 와당문 서예체를 쓰는 거의 유일한 서예가로 유명하지만 이와 함께 단군숭모를 통해 우리의 얼을 지켜나가는 곳곳한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향은 자신의 집 옆에 세운 단군사당에 환검 단군황제가 태어나고 즉위한 날인 음력 10월3일의 개천절과, 단군이 죽은 날로 알려진 음력 3월15일의 어천절에 반드시 구청장·시장·교육장을 데려다 제사를 지내게 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단군이 나라의 시조인 만큼 개인이 제사를 올릴 수 없고 국가에서 지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국가의 대리인인 관리로 하여금 제주가 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에 참례하는 기관장들과 그에게 한문과 서예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시조인 단군은 “신화 속의 가공인물이 아니라 4천여년전 한반도를 비롯해 4만리에 이르는 넓은 강토를 다스린 배달국의 통치자였다”고 강조한다. 이러



홍익인간에 대한 이념을 전파하고 실천해온 지가 올해로 39년째가 된다.

“우리의 혼을 빼앗은 일제가 망하고 나라가 섰으면 역사도 바로 서야 당연한 일 아니겠소. 그런데 나라가 세워져도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되질 않더라 말이야. 그래서 단군모시기에 내가 나서게 됐고 나라에서 받아들이 때까지 계속할 작정이야.” 그의 이런 정성은 지난 87년 꿈속에서 환인 환웅 환검의 3대 할아버지가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연히 여행길에 나섰다가 보령 성주사터에 세워져있다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들의 돌조각상을 발견해 단묘 뒤편에 모시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단군이 ‘신지’라는 신하에게 글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돌조각상 뒤편에 신지의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정향의 이런 주장과 행동들을 두고 ‘국수주의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사실들은 그가 지어내 게 아니라 각종 고서에 나와 있

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는 근세 금석학의 대가이며 3·1 만세운동을 이끈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오세창 등으로부터 배운 뛰어난 한문실력으로 우리나라 중국 등에 산재해 있는 단군에 관한 옛 서적을 모두 모으고 있다. 단군왕조의 실록인 고려 이말의 저서인 <단군세기>, 청나라 건륭황제가 펴낸 <만주원류고> <산해경> <후한서> 등에서 발췌한 단군의 기록을 토대로 책을 엮은 것만 해도 10여권에 이른다.

그가 말하는 단군조선은 <단군세기>에 따르면, 4천3백27년 전인 무진년에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환검을 임금으로 추대해 단군이 돼 국호를 ‘단’이라고 하고 칭호를 ‘배달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왕조는 만주 길림성에 도읍을 정한 47대 왕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또한 단군이 통치한 영토는 위쪽으로는 흑룡강에서 아래쪽으로는 대마도에까지 이른다 고 주장한다. 정향은 이렇게 엄연한 사실의 단군조선이 신화로 이어져 오게 된 것은 고려를 침공한 원나라가 나라의 서고에 있는 역사서적을 몽땅 가져가고 원나라의 관직까지 받은 고려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단군황제를 단군으로 강등시키고 신화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향은 지난해 겨울 자신이 소장한 각종 고서적·서화 등 5백여점과 단묘 등을 대전대에 기증하며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우리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혼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단군에 관한 발췌기록물들을 다시 정리해 널리 알릴 때가 빨리 와야 할텐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대저 / 손규선 기자